

한라시론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남는 쌀이 없는 밭농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양곡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도에 쌀은 136kg, 보리는 37kg을 소비했는데 당시 육류소비량은 5.2kg이었다. 그로부터 52년 후인 지난해에 쌀은 56kg, 보리는 1.6kg을 소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육류는 쌀과 같은 양을 소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의 소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밀가루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빵이나 과자류 등 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소비가 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도 식품 소비 형태는 경제발전의 여파 양곡의 소비는 줄어들고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쌀 소비의 감소로 인해 재고의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쌀 문제의 해법을 두고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논은 밭과 달라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제주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라 농업의 기반이 되는 흙은 육

지부와 다르게 돌과 화산재로 이뤄져 척박하다.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1년 3개월의 짧은 재임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자연, 역사, 풍속, 방어 등에 대한 그 시대의 상황을 '남환박물'이란 기록으로 남겼다. 그중 농업과 관련된 것을 보면 '토질이 척박하고 밭을 밟아주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름을 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밭 밟기를 한다'고 기록했다. 이와 같이 거친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식량을 생산하며 삶을 이어오신 선조님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가 바로 밭이다.

거친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 돌을 골라내고 그것으로 울타리를 쌓아 경계를 이루고 바람을 막아 곡식을 키워내었던 것이 '밭담'으로 지금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구어진 밭에서 1938년 가장 많이 재배한 식량작물인 조는 3만ha 이상 생산해 당시의 주 식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메기떡은 술 제조하기 위해 좁쌀을 가루 내어 익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를 원료로 한 전통주가 있을 만큼 조는 중요한 식량이었다. 이후 신평종 보리가 도입되면서 1960년도에는 보리 생산량이 3만ha 가까이 확대되면서 보리가 주식이 됐던 적이 있다.

현재는 식량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은 거의 없고 주로 과수와 채소를 생산해 소득을 얻고 있다. 육지부의 논과는 다르게 작물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을 가진 밭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선조님들에게 요즘 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

편집국 25시

부메랑 효과



이상민 행정사회부 기자 hasm@ihalla.com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할 때 사용한 도구다. 그러나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속성 탓에 오히려 위협을 주기도 한다. 심리학에선 이처럼 의도를 벗어나 오히려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부메랑 효과라고 부른다.

제주시가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한 뒤 수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항공청으로부터 수억원대 변상금을 부과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 개정으로 공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시는 법이 바뀐 줄 모르고 방치하다 변상금 폭탄을 떠안았다. 시는 항공청도 법이 바뀐 줄 몰라 수년째 아무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시의 말대로 손 놓고 있었던 건 제항청도 마찬가지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곧 부메랑이 돼 되돌아온다. 제주 행정당국이 장기간 권한을 방치하다 뒤늦게 부상을 띤 적을 여러 번 봐서다. 한 식당 업주가 6년간 공유재산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당국은 지난해에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1985년부터 30년 넘게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한 도 호텔에 대해서도 2018년에야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이것 뿐이라. 시의 주장대로라면 이들로부터 받은 변상금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시민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따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뉴스-in

4·3기록유산 기원 명분 소원지 태우기

불 놓기 무산 5만여 장 처리

“행정체제 개편 잘 알아야”

○...전국 산불 경계 경보로 2023 제주불축제 기간에 오름 불 놓기를 취소했던 제주시가 제주4·3 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기원을 명분으로 내걸고 일요일인 이달 21일 오전 10시 애월읍 새별오름 광장에서 소원지 태우기 행사를 연다고 3일 발표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3일 5월 직원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정확한 인식 후에 시민들이 찬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배경과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경문화회관에서 열린 도민경청회와 관련 "도민 61.4%, 공무원 59.8%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고 언급.

이날 소원지 태우기는 고사이어 특별 제작한 화구에 소원지를 넣어 태울 예정인데 들불 축제 때 달집과 함께 사르려던 5만여 장을 처리할 계획. 제주시 측은 "정성으로 예를 갖추고 잘 준비해 행사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오름 불 놓기 논란 속에 굳이 공개적으로 소원지를 태워야 하는 반응.

이에 "사실에 대해 잘 모를수록 부정적인 인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주민들이 찬반 결정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민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 백금탁기자

사설

행정체제 개편 시동... 공론화 내실 기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일 제1차 도민 경청회를 열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 제주도에 제출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첫 경청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 골격은 행정체제 개편 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구역 획정 등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도민들의 살림살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등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도민의 살림살이와 생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

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또 새로 도입될 행정체제는 자치단체장을 많이 뽑아 자치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권역과 관련해서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행정체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따라 분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내실을 기해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

열 번째 맞는 전기자동차엑스포의 의미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조망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어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국면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전 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추진한 것은 전기차 보급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UAM, 전기선박, 농기계 전동화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조망되는 기대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까지 미래 모빌리티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 원대한 계획이 결만 번지르르하거나, 사실상 경쟁상대인 타 시도에게 뒤처져 궁극에는 옹두사미 볼 수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처음 문을 열었던 엑스포가 모빌리티 혁신으로 에너지 대전환까지 선도하는 시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더

이제 "사실에 대해 잘 모를수록 부정적인 인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주민들이 찬반 결정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민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 백금탁기자

이번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좀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수안씨 성선(향년 10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5월 4일 아 들 고희환 며느리 양선옥 동원 양복자 딸 고순자 사 위 오규남 순숙 이도월 순심 순일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영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수 다 음 일련번호 분묘 소재지 지목 가수 비고 1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515-1 임 1 2. 개장사유: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허니마켓 신축공사예정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분묘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분묘장) ☎ 064710*6628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영고자가 있는 경우: 영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영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개장 확정 후 공설분묘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조천농협협동조합 기획과 ☎ 064*780*2264 ○ 문의처: 조천농협협동조합 기획과 ☎ 064*780*2264 2023년 5월 4일 위 공고인: 조천농협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건립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외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의 명칭 해길1호, 해길2호, 해길3호 태양광발전소 (총3개소) 2. 발전소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224, 2225, 2226 3. 발전소의 면적 29,895㎡(중면적 40,252㎡)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999.90KW * 3개소 - 사업 개시 예정일: 2024년 04월 01일 - 사업 운영 기간: 사업 개시 후 20년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주)해길에너지 6. 의견제출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7일 (7일간) 7. 의견제출 방법 e-mail: es62187@naver.com tel. 070-4139-7594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신속히(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 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생시 승수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백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 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총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덕수(향년 9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5월 4일 부 인 이춘자 아 들 고희구 며느리 이명희 영일 김선예 딸 고해은 사 위 이수정 혜숙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펜션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